안녕하십니까. 한우개량사업소 가축병원장 임연수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제각에 대해서 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대로 방치하면 한우는 뿔이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용관리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생후 1주일 이내에 보통 제각 작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제각작업은 우선 송아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정을 한 다음에 양쪽의
앞쪽을 만져보면 뿔이 자라는 볼록한 부분이 만져집니다, 손의 감촉으로. 이
부분에 제각용 연고를 바르는 건데, 제각용 연고를 바르기 위해서는 털 때문
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털을 깎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여기에 뾰족한 뿔, 시작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털을 깎았고요 이 반대
편도 같이 털을 깎겠습니다. 하얗게 드러난 부분이 있죠? 털을 최대한 바짝
깎은 다음에 생장점 부위의 털을 제거했으면 이제는 여기다 제각연고를 발
라줘야 합니다.
제각연고는 칼슘하이드록사이드 성분의 약입니다. 보통 요것을 맨손으로 하
면 굉장히 부식성이 강해서 손을 다치니까요 보통 나무나 플라스틱 막대기
를 이용해서 제각연고를 이렇게 풉니다.
뿔 생장점 주위에 이렇게 바르시면 이 생장점이 제각연고에 의해서 파괴되
기 때문에 그 다음에 뿔이 안 자라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00원
동전 크기 모양으로 제각연고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미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어미가 이 부위를 핥게 되면
혀가 약의 부식성에 의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제각을 했을 때에는 반나절
정도는 어미가 핥지 못하도록 머리에 캡을 씌우든가 어미와 격리해서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각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